

임진왜란기

朝・明

관계사 연구

유 보 전

민족출판사

임진왜란기 朝・明
관계사 연구

유보전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壬辰倭乱时期朝明关系史研究/刘保全著.—北京:民族出版社, 2005.9

ISBN 7-105-07386-1

I.壬... II.刘... III.中朝关系—国际关系史—1592~1598—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D829.312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5)第137842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 www.e56.com.cn](http://www.e56.com.cn)

民族出版社微机照排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5年9月第1版 2005年9月北京第1次印刷

开本:787毫米×1092毫米 1/16 印张:13.75

字数:210千字 定价:26.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64228211; 发行部电话: 64211734)

본 도서는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이고 주로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책이므로 한국어표기법을 그대로
적용하였음.

임진왜란기 朝・明
관계사 연구

A Study on the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Chosun Dynasty and Ming Dynasty in the Period of
Imjin Waeran

차례

緒 論	1
I 壬亂 以前の 朝・明・日 三國 관계	11
1. 壬亂 以前 三國의 事情과 상호 關係	11
1) 朝・明 關係	11
2) 朝・日 關係	21
3) 明・日 關係	24
2. 日本의 侵略 準備와 朝・明의 對應	28
1) 日本의 侵略 意圖와 準備	28
2) 朝鮮의 對明 倭情 通報와 朝・明의 對應	33
II 壬亂 初期의 朝・明 關係	47
1. 明軍 參戰의 動機와 時期	47
1) 朝鮮 朝廷의 ‘內附’ 論議와 ‘請兵’ 問題의 實狀	47
2) 明의 派兵 動機와 그 時期	60
2. 明軍의 派兵	75
1) 明軍의 參戰과 平壤城 收復	75
2) 平壤城 收復 以後 明軍의 動向	78
III 講和會談과 丁酉再亂期の 朝・明 關係	86
1. 講和會談과 朝・明 關係	86

2 임진왜란기 朝・明 관계사 연구

1) 講和會談의 進行과 爭點	86
2) 講和會談에 대한 朝鮮의 立場	105
3) 講和會談의 決裂	118
2. 丁酉再亂과 朝・明 관계	122
1) 丁酉再亂時 明의 再次 派兵	122
2) 明軍의 撤收와 朝鮮의 動向	123

IV 壬亂 後 東北亞의 情勢 變化

1. ‘丁應泰의 朝鮮誣告事件’의 實狀과 그 影響	132
1) 誣告事件의 發端과 實狀	132
2) 明朝廷의 反應과 誣告事件의 結果	149
2. ‘再造之恩’ 意識의 擡頭와 對明 認識의 變化	155
1) ‘再造之恩’ 意識의 擡頭	155
2) 朝鮮의 對明 認識의 變化	160
3. 後金의 勃興과 朝鮮의 對後金 關係	171
1) 壬亂 時期의 朝鮮・女眞 關係	171
2) 後金의 勃興과 朝鮮・明・後金 三國 關係	177

結 論

參考文獻

中文摘要

緒 論

조선시대 對明 관계는 조선 전기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외교 관계의 한 부분이었다. 대명 관계는 명의 건국 시기와 조선 왕조의 건국 시기에는 다같이 긴장감 속에서 유지되었지만, 李成桂의 '威化島回軍' 이후 對明 '親善'政策으로 기울어져 이른바 '事大관계'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대명 관계와 매우 밀접히 관련된 큰 사건이 바로 壬辰倭亂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이 조선을 침범한 사건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1차 침입을 보통 '壬辰倭亂'이라 하고, 2차 침입을 '丁酉再亂'이라고 한다. 포괄적 의미에서는 모두 합쳐 보통 '임진왜란'이라고 한다.¹⁾ 이 역사적 사건을 중국사에서는 '萬曆의 役'이라 하고, 일본사에서는 '文祿・慶長の 役'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 양국 모두 '임진왜란'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임진왜란'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그 주변적 상황들에 대한 양국의 관계를 고찰하려 한다.

대명 관계는 조선 왕조가 가장 중요시했던 만큼, 이 분야에 관한 연구 업적이 방대하지만 아직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임진왜란을 전후한 16세기말부터 17세기 중반까지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질서에 큰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이 시기는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말미암아 중국은 조선에 원병을 파견이후 조선에 '再造之恩'의 분위기를 조성시켰고, 조선은 대명 事

1) 광의의 임진왜란과 협의의 임진왜란에 관한 일련의 이해는 許善道の 논문 「壬辰倭亂-올바르고 새로운 認識-」,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동간행위, 1985.)을 참고했다.

2 임진왜란기 朝・明 관계사 연구

大關係를 더욱 강화시킨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에 女眞은 이 기회를 틈타 세력을 확대하고 조선을 정벌하여 淸과 조선과의 관계에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을 무대로 약 7, 8년간 일본과 조선・명의 삼국 관계는 일련의 전투나, 講和交渉 등의 문제로 매우 복잡한 국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동아시아의 정세를 배경으로 하는 조・명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보다 치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한국에서 임진왜란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1960・70년대에 들어와 활발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구 영역도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한・중 관계에 대한 연구 또한 관심 영역으로 부각될 수 있었다. 대명 관계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 가운데 明의 援兵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분야이다. 조선에서의 明軍 활동과 명군의 군량 조달을 중심으로 살핀 연구가 있고, 의병 문제에서 조선 관군과 명군과의 관계를 주로 다룬 논고도 있다.²⁾ 명군의 來援이 조선에 미친 전반적 피해 상황과 왜란 후 명군의 留兵・撤兵論에 대한 논의도 있다.³⁾ 한국 학자의 시각에서 명의 원병에 대한 입장은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당시 삼국의 외교관계, 즉 講和의 교섭과 '封貢'을 다룬 논고가 있으며, 『明史・朝鮮傳』을 상세하게 분석한 글⁴⁾도 있어 이 방면에 관련된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이 밖에도 부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의도 적지 않다.

한국사에서는 임란 중 조선의 대명 외교에 대하여 당시는 급박한

-
- 2) 李章熙, 「糧餉調達の 實相」, 『壬辰倭亂史研究』, 아세아문화사, 1999.
孫鍾聲, 「壬辰・丁酉 倭亂中の 明兵에 대한 糧餉供給 問題」, 고려대 석사논문, 1980.
 - 3) 劉九成, 「壬亂時 明兵의 來援攷」, 고려대 『史叢』 20, 1976.
柳承宙, 「倭亂後 明兵의 留兵論과 撤兵論」,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동간행위, 1985.
 - 4) 權重憲,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한 삼국 외교관계」, 경희대 석사논문, 1976.
黃元九, 「〈明史〉・「朝鮮傳」譯註(I)」, 연세대 『東方學志』 14, 1973.
----, 「〈明史〉・「朝鮮傳」譯註(II)」, 연세대 『東方學志』 15, 1974.
----, 「〈明史紀事本末・援朝鮮〉辨證」, 연세대 『東方學志』 46・47・48合輯, 1985.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에 대하여 지나친 사대의 예를 표시한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국가 이익을 위한 독자적 입장을 취했다고 보고, 사대의 질이 변한 것이 임란 이후라는 시각을 보인다.⁵⁾

임란 이후 명군의 留兵과 撤兵을 둘러싸고, 조·명은 그 견해를 달리하였는데, 그것은 軍糧의 부족에서 오는 조선 측의 철병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명의 留兵 강요가 서로 맞서게 된 것에 연유한다. 이 상반된 이견을 갖게 된 양국의 입장을 考究한 것으로는 몇몇의 연구 성과가 참고 된다.⁶⁾

임란 중 명군의 참전 동기와 역할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예를 통하여 살필 수 있다. 이들 주목된 견해에서는 명군이 끼친 민폐와 그들에 대한 군량의 조달과 피해, 그리고 명군의 결전 회피와 횡포 등 내용을 통해 명군 참전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명은 왜군의 침략을 조선의 국경 내에서 처리함으로써 사전에 방지하여 그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즉, 명이 조선에 원군을 파병한 목적은 조선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최소한 전장을 조선의 영토 내로 한정하여 그들의 영토가 전화를 입지 않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이다. 명의 파병은 외면상 조선측의 청원에 의한 구원의 성격을 띤 것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오히려 조선의 힘을 빌려 명을 지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시각도 있다.⁷⁾

근간에 임진왜란과 대명 관계를 각각 명군 참전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영향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살폈던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⁸⁾ 이 책은 명군의 참전은 정치적으로 조선 주권의 침해와 '再造之恩'을 조선에게 강요하도록 했고, 경제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銀의 수요가 확대하므로 명나라 은의 유입과 동시에 상인의 유입과 重商論을 강조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사회·문화면에서는

5) 崔永禧, 「壬辰倭亂中の對明事大에 대하여」, 『史學研究』 18, 1964.

6) 유승주, 앞의 논문.

7) 金弘, 「壬亂時 明軍 參戰에 따른 朝鮮의 被害」, 『3사교 논문집』 50, 2000.

8)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명군 주둔으로 인해 민폐와 명 문물의 유입과 조선의 대응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광해군대의 대명 관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광해군대의 조·명 간의 쟁점과 對後金 출병 문제와 관련했던 대명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한편, 명나라 원병 활동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임란 후 양국 관계는 전통적인 冊封·朝貢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재조지은’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재조지은’은 후대에 가서 여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여부가 정권 교체의 명분이 될 만큼 이념화되었다고 보았다. 광해군도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조지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인조의 반정으로 폐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재조지은’ 지위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연구자도 조선 전기의 조·명 관계가 ‘朝貢-冊封體制’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고 한다면, 명이 쇠망의 길로 들어 명·청 교체의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던 임진왜란 이후의 양국 관계는 ‘再造之恩體制’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⁹⁾ 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를 임진왜란 이전 시기와는 단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참신한 견해로 판단된다는 평가도 있다.¹⁰⁾

여하튼 한국에서 이 분야의 연구는 조선에서의 명군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중국의 연구자와 같은 시각에서 논의하고 있는 경우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몇 동양사학자들은 ‘中國側’ 혹은 ‘中國史의 側面’의 시각에서 본 중·한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가 눈에 띈다. 이런 연구는 명·청 시대 “조선 대외관계사의 어두운 이면은 조선과 중국의 관계에서보다는 중국과 조선의 관계에서 조명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¹²⁾고 하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연구 내용 방면은

9) 한명기, 「조선과 명의 사대관계」, 『역사비평』 50, 2000, p.310.

10) 高英津, 「한국 역사학계의 회고와 전망」, 『歷史學報』 167, 2000, p.93.

11) 崔韶子, 「壬辰亂時 明의 派兵에 대한 論考」, 『東洋史學研究』 11, 1977.
-----, 「明末 中國의 世界秩序의 變化」, 「明末清初社會의 照明」, 한울, 1990.

-----, 「명·청 시대 중·한 관계사 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97.

12) 최소자, 「명청 시대 중·한관계사 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97, p.21.

임진·정유왜란과 명의 대조선 관계, 임란 시 조선 조정 ‘內附’의 문제, 명·청 교체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胡亂과 조선의 대명·청 관계의 변천 등이었다. 이것은 임란의 충격이 중국으로의 파급될 것을 명이 우려해 자위책으로 출병한 점에 둔 것이다. 명의 파병에 관해 논의한 연구들은 명나라가 왜군의 중국진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에서 파병한 것이라서 명군의 활동이 처음부터 한계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동양사 학자들이 임란시기 조·명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던 까닭은 임진왜란이 “한·중 관계사상 매우 특기할 만한 한·중 우호체제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다.”며, “조·명 양국관계의 형식과 실재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¹³⁾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入遼內附論’과 임란과 관련된 ‘遼東問題’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기하였을 때에, ‘入遼內附論’이 곧 주권의 포기나 국가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入遼의 목적이 명의 원병에 의지하여 국토를 되찾는 데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¹⁴⁾ 또한 “명의 출병은, 조선을 구원하여 종래의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계속 유지시킴과 아울러, 遼東을 보전하여 중국에 대한 일본의 위협을 차단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였다.¹⁵⁾

임진왜란 이후 중국사에서 ‘征東’, ‘征倭’나, ‘經略復國’, ‘再造藩邦’이라는 표현¹⁶⁾으로 임진왜란이 지칭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抗倭援朝’라고 표현되는 사실¹⁷⁾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명은 조선의 구원 요청 이후 군대를 파견하였으므로 그들은 뚜렷한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다.

援兵 문제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연구 범위의 설정에 있어서 전쟁의 진행 과정이 한정되어 있고 중국인 입장에서 연구된

13) 金翰奎, 『한·중관계사』 II, 마르케, 1999, p.613.

14) 김한규, 앞의 책, p.615.

15) 김한규, 앞의 책, p.614.

16) 茅瑞征의 『萬曆三大征考』와 宋應昌의 『經略復國要編』이 그 예이다.

17) 周一良의 『明代援朝抗倭戰爭』(中華書局, 1962.)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것이어서 원병의 전과를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한 느낌이 없지 않다.¹⁸⁾ 예컨대 ‘壬辰倭禍’ 관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문과 저술을 낸 대만지구 학자들의 연구가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중국에서 임진왜란, 그리고 왜란과 관련된 중・한 관계사를 다룬 연구는 지난 80년대 이전 시기에 대륙보다 대만에서 오히려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런 연구 성과에서 명의 파병과 승전, 그와 관련된 인물로서 李如松・楊鎬・石星・宋應昌 등에 대한 활동이 언급되었다. 그렇지만 대만지구에서 이루어진 논문들¹⁹⁾ 대부분은 자료 소개를 하고 그에 대한 간단한 의견만을 내놓은 것이어서 치밀한 분석적 연구에 접근하지 못한 한계를 노출시켰다.

대륙에서의 연구 성과를 보면, 대륙 학계에서 이른바 ‘抗倭援朝戰爭’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950년대 ‘抗美援朝’의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중・한 수교 이후의 시기이다. 1950년대 한반도전쟁과 관련하여 대륙에서 임진왜란에 관한 기사를 ‘援朝抗倭’ 또는 ‘援朝抗日’ 전쟁으로 소개한 것이 많았다. 일찍이 임진왜란에 대한 보다 비교적 폭넓은 접근을 시도한 60년대의 연구자들의 성과를 보면, 임진왜란을 ‘朝・中聯軍的偉大勝利’라고 규정하고 있다. 임란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조선으로 말하면 조국을 수호하여 침략을 면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말하면 ‘兄弟之邦’(조선)을 원조하는 동시에 일본의 침략을 막고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는正義가 있는 행동이다.”²⁰⁾라고 했다. 이들 연구는 조선 수군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 원군은 전쟁 승리의 원인 중의 하나이며, 조선 내의 ‘의병운동’을 전쟁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하였다. 中・朝 관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깊이 있는 접

18) 이장희, 「왜란과 호란」, 『한국사연구입문』 (제2판), 지식산업사, 1987, p.319.

19) 王婆楞, 「歷代征倭文獻攷」, 正中書局, 臺北, 1986.

李光濤, 「朝鮮壬辰倭禍研究」,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72.

——, 「朝鮮壬辰倭亂史料」,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70.

鄭梁生, 「明代中日關係研究」, 文史哲出版社, 1985.

王崇武, 「李如松征東攷」,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16, 1947.

——, 「劉綎東征考」,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14, 1949.

20) 周一良, 「明代援朝抗倭戰爭」, 中華書局, 1962, p.1.

근은 이뤄내지 못했다.

중·한 수교 이후의 연구는 이전과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중·한 수교 이후에는 중·한 관계통사에서의 간결한 논의와 明代의 中·朝 관계사를 전문으로 다룬 저술들이 발표되었다.²¹⁾ 그중 黃枝連의 연구가 주목할 만한 성과인데, 그는 “豐臣秀吉이 조선을 침략한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라고 자문하면서, 조선과 명나라가 이번 ‘倭禍’를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封貢’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심화시켰다. 그는 명에서의 派兵 援助 이유를, “물론 중국 자국의 안전과 관련하지만, 더 심층의 원인은 조선이 건국 이래 명에 대한 사대를 진심으로 하여 예와 성의를 다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임란을 “조선인과 중국인이 ‘天朝禮治體係’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衛道戰爭’”이라고 보았다.²²⁾

다음과 같이 제기된 명군의 역할에 대한 관점은 비록 중국 학자들의 대표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명조가 조선에 출병, 원조한 것은 명나라가 직접 전란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왜란 중에 명군과 조선은 지휘 체계를 통일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이후 일본과 和議할 때 명군은 조선과 상호 의견 조율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이것은 封建宗藩 관계에서 비롯된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비록 이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 들였지만 현대적 개념으로 볼 때, 이것은 불평등한 국제 외교적 사례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명조가 본국의 국경선 방위에 국한하지 않고 조선까지 출병을 하여 전력을 다해 침략자와 싸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조선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를 재고해

-
- 21) 蔣非非, 王小甫 외, 『中韓관계史·古代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8.
 姜龍范, 劉子敏, 『明代中朝관계史』,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99.
 王向榮, 『明史·日本傳箋證』, 巴蜀書社, 1987.
 王向榮, 王皓, 『中世紀의 中日관계』, 中國青年出版社, 2001.
 楊昭全, 何彤梅, 『中國·朝鮮·韓國관계史』, 天津人民出版社, 2001.
- 22) 黃枝連, 『東亞的禮義世界-中國封建王朝與朝鮮半島관계形態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4, p.8.

불 필요가 있다고 했다.²³⁾ 여기서 논자는 중・한 전통적인 관계를 ‘脣齒相依, 患難與共’으로 규정하는 한편, 임진왜란 시기의 양국 관계를 감안할 때에는 역사적인 시각과 오늘날의 시각에서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외교상 국가간에는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현대적인 외교 관념으로 볼 때 비판의 여지가 없지 않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의 연구 경향의 특징은 중・한 수교를 전후로 하여 큰 시각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²⁴⁾는 그 주제와 영역이 정치・국방・경제・외교・사회사적인 부분 등 다방면에 걸쳐서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그 결과 조선 또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인식도 가져다 주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본인이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대개 정치사와 전쟁사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戰勝史觀’을 강조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연구 대상의 확대와 인식상의 변화가 보인 것은 1980년대 이후였다.

종래 일본의 사료와 연구를 보면, 일본측의 연구는 대체로 자국의 승전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壬亂勝戰觀’에 바탕 한 武威가 江戸時代 ‘對朝鮮優越觀’과 일본형 ‘華夷觀念’의 지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일본측의 연구자들이 임진왜란을 패배한 전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²⁵⁾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를 총체적으로 짚어 볼 때, 일본의 임진왜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江戸 시대부터 현재까지 임진왜란을 豊臣秀吉의 武威 선양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秀吉의 조선 침략의 성격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은 秀吉이 국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

23) 楊通方, 「壬辰・丁酉亂時 明軍의 役割」, 「壬辰倭亂과 海洋力」(國際海洋力 심포지엄 發表文集), 해군해양연구소, 진해, 1991, p.125.

24) 일본에서의 연구 상황은 다음 두 편의 논문을 기술했다.
이장희, 「임란과 호란」, 「한국사연구입문」(제2판), 지식산업사, 1987.
김문자,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의 시각 변천」, 「역사비평」 46, 1999.

25) 北島萬次の「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校倉書房, 1989.)과 貫井正之 등이 공저한 「文錄・慶長之役」(學研, 1993.)이 바로 그런 예이다.

는 과정 속에서 조선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 시켜 정복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조선이 외국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이 국내 통일의 연장으로 생각해서 패전 후에도 패배 의식보다는 오히려 바다를 건너서 정벌의 양양을 남겼다는 우월적인 의식만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의식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秀吉의 야망을 망각시키는 한편, 후예들에게 역사적 우월감을 심어주는 경향이 존재한다. 침략이 당시의 국익에는 오히려 이바지하였다고 선전함으로써 민족성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술한 北島萬次과 貫井正之 등과 같이 보다 개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된 바도 없지 않지만 아직도 일본의 자국적인 시각에서 임진왜란을 바라보려는 바도 상존한다.

위와 같은 임진왜란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한·중·일 3국이 각각 자국의 입장에 머물고 있어서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미약한 편이고, 주관적이고 부분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명군의 활동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 피해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중국에서는 주로 명군의 승전을 중심으로 논하였으며, 일본에서는 豊臣秀吉의 의도를 강조하면서 명과의 강화 교섭과 ‘封貢’문제 등을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기존의 임진왜란기 조·명 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이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또한 현재 동아시아 3국인 한·중·일은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등 미묘한 외교적인 문제가 적잖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내의 외교·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은 동아시아 3국이 각각 자국적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역사적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솔직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역사적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조선시대의 사료뿐만 아니라, 명과 일본의 사료도 폭넓게 발굴하고 아울러 이용하기로 한다. 당시 명나라에 관련된 각종 사료를 충분히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講和會談에 대한 문제에서는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기로 한다. 이런 방법으로 당시의 관련 사료들을 면밀히 살핀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倭亂期의 양국 관계사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 같이, 史實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적 시각을 염두에 두면서, 3국에 공존하는 사료를 비교 검토하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시각에 따라서 그 견해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 임란기의 조·명 관계사는 실로 어떤 연구 방법보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전후한 조·명 관계사 연구는 전반적인 한·중 관계라는 通史的인 입장에서 세밀히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왜란기의 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왜란 이전과 그 이후의 양국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계의 변화를 점검함으로써 왜란의 역사적 중요성도 새삼 부각될 것이며, 그에 따른 종합적인 시야와 전망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양국간의 관계 변화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설명되어야만, 양국간의 관계 변화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제적 틀 속에서 왜란기의 조·명 관계를 올바르게 짚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조공과 책봉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방법론적 시각에 대해 더욱더 신빙하게 한다.

따라서 본고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조선과 명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왜란 전의 양국 관계와 양국의 정치·사회적 배경, 전쟁 진행 과정에서의 상호 관계 흐름을 살펴보고, 왜란 후의 외교관계 변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한·중·일 3국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동아시아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